농업과학기술 우수성과 5건

과수 농약 살포 가능 로봇 방제기 개발 등

농진청, 올해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선정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2021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 5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우수성과 100선은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고,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06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6개 과학기술 분야(기계·소재, 생명·해양, 에너지·환경, 정보·전자, 융합, 순수기초·인프라) 가운데 생명·해양 분야에서 5건의 우수성과를 냈다.

먼저, 고정밀 위성항법시스템(GNSS) 기반 자율주행체와 과수에만 농약 살포가 가능한 지능형 로봇 방제기를 결합해 무인 방제기술을 구현했다.

과원에서 농약을 살포할 때 농작업자가 유해 한 농약 흡입 피해를 입거나 전복사고가 발생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라이다(LiDAR) 감지기가 과원 안 나무의 정확한 위치, 형상을 파악해 과수로 인식되는 곳에만 농약을 분사함으로써 농약 살포량을 약 20~30%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고정밀 위성항법 시스템에 기반, 사전에 경로를 설정해 자율주행하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 기술은 2022년도 농촌진흥청 신기술보급사업을 통해 보급, 확산할 계획이다.

농진청은 노령인구의 급증으로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커지고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사용 가능한 국산 원료는 부족한 실정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식품자원의 단점을 극복한 최적의 기능성 소재화 기술을 확립하고, 데이터베이스 기반을 구축했다.

또한, 건강기능성식품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식량작물을 활용한 신소재 개발을 위해 국내 최초 밀싹 함유 유효성분과 기능성을 구명했다.

밀싹의 유효대사체인 이소오리엔틴, 옥타코사놀 등 물질 10여 종을 확보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골다공증 예방, 항산화 활성과및 면역 활성 등 효과를 입증했다. 새싹밀의 골다공증 예방 특허기술을 농식품 업체에 기술이전해 새싹밀 소재가 함유된 제품을 생산, 판매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래 벼를 대체할 국산 벼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 공급자 중심의 품종개발에서 수요자 참여형 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농업인, 유통업자 요구를 동시에 충족하는 최고품질 벼('해들', '알찬미') 품종을 개발, 보급했다.

끝으로, 약 750~1,050년 전 아프리카 소의 조상인 타우러스 품종과 인디커스 품종이 유전적으로 혼합되면서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유전형질을 가지게 됐고, 아프리카 소 목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면역, 열 저항성, 생식, 수면병에 대해 소의 강건성과 관련된 유전자를 확보해 미래지향적 육종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우수성과 100선 선정으로 과기정통부장관의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며, 관계 규정에 따라 사업평가에서 가점을 받는다. 아울러 3년간 연구개발(R&D) 과제를 선정할 때,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농촌진흥청은 올해까지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에 104건이 선정되는 성과를 이뤄내며 국가기관으로서 농업 연구개발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농진청 연구정책국 조남준 국장은 "고령화와 인구정체에 따른 농촌소멸 우려, 기후변화, 식량안보 등 농업이 직면한 현안 해결을 위해 농업·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하고, 보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다하는 국가기관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태영건설, '에코시티 데시앙 15블록' 임차인 모집 본격

커뮤니티·건강·조경에 '심혈'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전북지역 거주자라면 4~5일 청약접수 가능

에코시티 데시앙 15블록 조감도

태영건설은 지난달 29일 전북 전주시 송천동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에코시티 데시앙 15블록의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 임차인 모집에 나섰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5개동, 전용면적 64~140㎡ 748가구로 구성된다. 세부 타입별 가구 수는 ▲64㎡A 46가구 ▲64㎡B 85가구 ▲64㎡C 47가구 ▲84㎡A 58가구 ▲84㎡A1 56가구 ▲84㎡B 58가구 ▲84㎡C 144가구 ▲104㎡A 142가구 ▲140㎡A 56가구 ▲140㎡B 56가구로 공급된다.

지금까지 에코시티 내에서는 주로 중소형으로 공급돼 전용 85㎡ 초과 중대형에 대한 희소성이 높은 상황에서 에코시티 데시앙 15블록은 전용 85㎡ 초과분이 약 34%에 달해 견본주택 오픈 전부터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에코시티 데시앙 15블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견본주택을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유니트별 가상현실(VR) 영상과 단지 배치, 특장점 등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단지는 대부분을 4~5베이 판상형으로 선보여 공간 활용도를 높였으며 동간거리 역시 타단지에 비해 넓게 배치한데다 남향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게다가 '에코시티 데시앙 1차(4·5블록)', '에코시티 데시앙 2차(7·12블록)', '에코시티 데시앙 14블록' 등과 함께 에코시티 내 약 6,000가구(임대주택 포함)의 매머드급 데시앙 브랜드타운을 형성할 예정이다.

에코시티 데시앙 15블록은 일반 임대아파트와는 다르게 커뮤니티에도 신경을 썼다. 실내운동을 즐길 수 있는 실내체육관을 비롯해 피트니스센터, 농구장, 실내 골프연습장, 단지 내 독서실, 작은도서관, 카페형 문고, 시니어클럽(경로당) 등이 갖춰진다.

여기에 시대 흐름에 맞게 특화 아이템도 적용해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전망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신발장에는 에어클리닝을 설치해 의류의 미세먼지를 청소할 수 있고 헤드 변경시 현관 청소도 가능해 청결한 현관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전 세대 조명·가스일괄 제어시스템, LED조명 등을 적용해 관리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단지 내 조경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각 동별 집앞에 정원을 조성해 입주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휴식 및 대화가 가능한 데일리가든을 조성한다. 또 텃밭과 휴게 및 운동시설 등을 도입한 시니어가든도 조성되며 그린프라자, 아띠랑스, 숲속놀이터, 언덕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전통공원, 산책로 등도 마련된다.

에코시티 데시앙 15블록은 명품 자연조망도 갖췄다. 센트럴파크 세병호와 백석저수지 더블 조망권을 갖췄으며 단지와 이어진 백석공원도 개발예정에 있어 개발 프리미엄도 누릴 전망이다.

분양 관계자는 "에코시티 데시앙 15블록은 최대 10년동안 거주 가능하며, 분양 전환시 임차인에게 우선권도 부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꾸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에코시티 내에서 희소성을 갖춘 전용 85㎡ 초과 물량이 30%가 넘는데다 이 단지까지 포함하면 약 6,000가구의 데시앙 브랜드타운을 조성하는 만큼 실수요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에코시티 데시앙 15블록 향후 일정으로는 오는 4~5일 양일간 청약접수를 진행하며 당첨자발표는 7일, 정당계약은 23~29일까지 7일간 에코시티 데시앙 15블록 견본주택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에코시티 데시앙 15블록은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무주택자)이고 전북도 거주자(전주시 우선)면 청약이 가능하다.

에코시티 데시앙 15블록 견본주택은 전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336-2에 위치하며 입주예정일은 2024년 4월이다. /김윤상 기자

바이오융합진흥원, 바이오인력양성사업 교육 성과 '풍성'

2기 수료식 끝으로 24명 배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지난달 29일 식품·바이오 관련분야 졸업자를 대상으로 바이오인력양성사업 현장실습교육 2기 수료식을 끝으로 24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사진=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제공〉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은 지난달 29일 식품·바이오 관련분야 졸업자를 대상으로 바이오인력양성사업 현장실습교육 2기 수료식을 끝으로 24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바이오인력양성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으로 한국바이오협회가 주관하여 전국 7개 식품·바이오 특화기관, 대학이 참여, 2021년 총 215명의 교육 수료 및 140명 취업을 목표로 교육을 진행했다. 2014년 사업 시작 이후 올해로 8년차 교육을 완료했고 현재까지 937명의 취업인력을 배출하여 식품·바이오 산업의 우수한 현장실무 전문인력을 공급하는 핵심 교육사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올해 교육은 GMP의 개론과 제품생산, 품질분석 교육에 현직자 특강과 함께 우수기관 및 기업을 중심으로 현장 실습 기회를 더욱 확대하여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에 집중하였고 특히, 예비취업자의 면접스킬 향상을 위한 취업역량강화 캠프는 교육생들에게 큰 만족도를 얻어냈다. 이로써, 올해 교육을 통해 24명의 교육인원 중 현재까지 12명의 취업인원을 배출하였고 향후, 도내외 건강기능식품 및 바이오 기업의 지속적인 취업연계가 진행될 예정이다.

본 교육의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교육생에게 월 50만원의 교육수당이 주어져 교육생의 교육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교육생 모집은 매년 1기는 4월 중, 2기는 7월 중 사람인(www.saramin.co.kr)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김동수 원장은 "바이오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식품·바이오 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실무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김장철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단속

전북 농관원, 내달 1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문태섭, 이하 전북농관원)은 김장철을 맞아 1일부터 12월 10일(40일간)까지 배추김치, 김장채소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전북지역 특별사법경찰관 19명을 투입해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당근 등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전북농관원은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위반 의심업체와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 효율적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또한, 통신판매 품목은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활용해 온라인몰, 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는 농관원,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공표한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 등을 구입할 때 소비자들도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나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연체이자 감면' 마련 따뜻한 금융 실천

전은, 서민 생활 안정 위해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극복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마련해 따뜻한 금융을 실천한다.

지원대상은 전북은행을 거래중인 개인, 소상공인 및 법인이며, 연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채권에 대해 원금상환여부에 따라 최대 300만원 까지 정상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로 가까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등이 진행 중인 고객은 제외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들을 통해 따뜻한 금융을 실천해 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전북은행 영업점 및 고객센터(1588-4477)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전북은행은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사회공헌활동에 12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희망이 꽃피는 사랑의 꽃 나눔 행사', '임직원 1% 급여성금 전달', '코로나19 긴급 특별 금융지원',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등을 전개하며 지역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김윤상 기자

폐근무복 새활용 디자인 공모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공사)가 ESG 경영 전략 강화를 위해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센터장 송상민)과 함께 '2021 새활용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LX공사와 전주시새활용센터는 친환경 제품 제작을 위해 전주시에서 발생되는 폐자원과 LX공사의 폐근무복을 활용해 새활용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폐자원의 새활용 지원과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폐근무복을 새롭게 활용해 지역 사회의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이전 공공기관이 의기투합해 진행하게 됐다.

'지구는 공공재, 이제 새활용으로 쓰레기를 쓸모 있게'를 주제로 한 이번 공모전은 30일까지 새활용제품을 디자인하고 제작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온라인(jucob21@naver.com)으로 접수하면 된다.

수상작 6편에는 총 1,500만원의 상금과 작품제작비와 전주시새활용센터장상과 LX공사사장상 등이 수여된다.

LX공사 김기승 부사장은 "앞으로 LX공사도 버리는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탄소중립 실천과 국민문화 확산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국민연금공단, ESG 요소 반영 중장기 경영목표 개선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ESG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핵심 아젠다로 부각된 상황 등 환경변화와 정부 정책을 반영해 전략체계를 재검토하고 2022~2026 중장기 경영목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에는 그간의 성과와 내외부 환경변화, 전문가 자문과 국민, 임직원 등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됐으며, 정부 정책의 효과적 이행과 ESG 실천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체계가 대폭 보완됐다.

국민을 대표하는 글로벌 연기금 투자자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탈석탄 선언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기금의 ESG 통합전략 강화 및 투자제한전략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담았다. 또한 제5차 재정계산 및 제도개선 준비를 위해 연금제도 연구 및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기금의 장기재정을 고려한 운용전략을 모색하는 한편,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기관 운영을 위해 휴먼뉴딜 등 중요성을 반영하여 사람·미래 중심 경영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윤상 기자